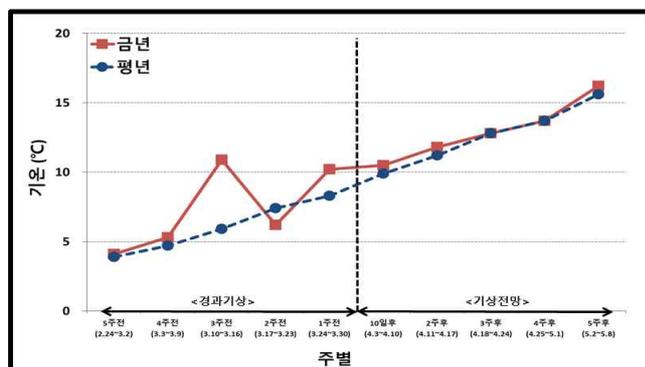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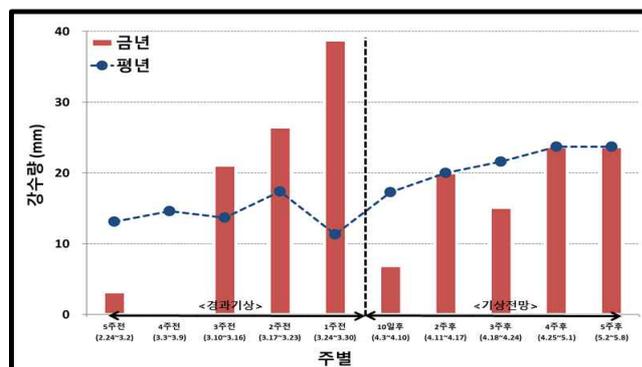


□ 기상 상황 및 전망

- 최근 1개월(2022.3.3.~3.30.)
 - 기온은 8.2℃로 평년(6.6)보다 1.6℃ 높았음
 - 강수량은 86.4mm로 평년(57.0)보다 29.4mm 많았음
 - 일조시간은 168.7시간으로 평년(184.5)보다 15.8시간 적었음
- 1개월 전망(2022.4.11.~5.8.) * 기상청2022.3.31. 11:00기준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 ※ 일교차가 크고(5월 1주),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겠음(4월 4주, 5월 1주)
 -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최근 기상 경과와 전망



<기 온>



<강수량>

□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 교육생 모집

- 과 정 명: 복숭아과정
- 신청기간: 4. 18.(월)~4. 22.(금)
- 교육기간: 5. 11.(수)~6. 29.(수) 8회 38시간
- 모집인원: 40명
- 모집대상: 상주시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신청 후 우편/메일/내방접수
- 교육내용: 복숭아 과원관리 및 재배기술 전반

□ 모기르기 사전준비

- 종자는 손 또는 일관자동 파종기로 파종되므로 균일한 파종을 위해 소금 물가리기 작업 전에 탈망작업을 실시함
- 종자량은 모를 낼 논에 소요되는 육묘상자를 고려하여 약 10%정도 여유있게 준비함
- 모기르기에 필요한 모판흙, 상자, 소독약제 등의 자재를 준비함
- 시판상토를 구입할 때는 시험연구기관의 위탁시험 결과가 첨부된 상토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토를 사용함

□ 볍씨 고르기 및 소독

- 충실한 볍씨 선별을 위하여 소금물가리기를 실시함 (보급종 등 종자의 정선 상태가 좋으면 생략함)
 - 균일한 파종을 위해 소금물가리기 작업 전 정선작업 실시함
 - 소금물가리기를 할 때 물의 비중은 베벼 1.13.(물 20L+소금 4.24kg), 찰벼는 비중 1.04(물 20L+소금 1.36kg)가 적당함
 - 소금물가리기 한 후 반드시 깨끗한 물로 4~5회 헹구고 흐르는 물에 볍씨를 담그기 하여 싹틔우기를 실시함
- 볍씨 소독은 약제침지소독법과 온탕소독법이 있음
 - 약제침지소독법은 적용약제를 물 20L에 종자 10kg을 볍씨받아기(온탕소독기)를 사용하여 30℃에 48시간 담가 소독함 (온탕소독할 볍씨는 사전 침지 및 염수선 금지)
- 볍씨 파종 직전 습분의 처리는 싹의 길이가 1.5mm 이하이고 볍씨에서 물방울이 1~2개 떨어질 때 종자

- 1kg에 전용약제 2.5ml를 잘 섞어 실시함
- 볍씨 소독후 종자 담그기는 **적산온도 100℃기준**으로 15℃에서 7일 동안 실시하고 신선한 물로 갈아주어 볍씨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함
 - 볍씨 담그기는 시간이 길어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자주 물을 갈아주어야 볍씨 활력이 유지됨
 - 파종전 볍씨 싹틔우기는 30~32℃에 어두운 조건에서 보통 1일정도 두어 하얀 싹 길이를 1mm내외로 키우면 적당함
 - 싹이 너무 길어지면 파종 작업할 때 싹이 부러지고 싹이 작으면 싹틀 때 모 키가 불균일하게 자람



〈알맞게 싹틔운 종자〉



〈너무 길게 싹틔운 종자〉

□ 못자리 설치 및 관리

- 부직포 못자리를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저온장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파종 한계기를 고려하여 파종함
 - 부직포 육묘과정은 종차 최아(1mm 내외)→파종→간이출아→못자리 치상→육묘상자 물주리→부직포 피복
 - 부직포 피복 후 바람이 날리지 않도록 흙을 상자 옆에

1~1.5m정도 간격을 엮어 고정시킴

- 어린모 육묘는 적정 물관리와 알맞은 온도 유지를 위해 출아기(30~32℃), 녹화기(20~25℃), 경화기(15~25℃)에 맞추어 주어야 함
 - 묘판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생육장해를 받아 고르지 못하고 과습하면 모가 쓰러지거나 뿌리 얽힘이 불량해지므로 물주는 양과 횟수를 조절함
 - 출아 직후에 녹화기가 되면 직사광선을 일부 가려 백화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지나치게 온도가 높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입고병(모잘록병) 예방 및 관리

- 작년 입고병(모잘록병) 발생 농가 사전방제
 - 최아실 소독: 최아실 벽면과 바닥을 염소계 살균제(락스 이용 가능)로 솔질하여 깨끗이 청소 후 문을 열어 말림
 - 모판 소독: 입고병 나온 모판은 무조건 세척 함
- 화학적 예방 및 관리
 - 적용약제를 파종 전 상토와 혼화처리 하거나 육묘상 관주 처리 함
 - 적용약제: 잘록엔, 팜한농다찌가렌, 다찌가렌골드, 성보다찌밀골드, 리도밀골드, 조아진, 신호탄 등



□ 봄철 맥류관리

- 논 포장과 배수가 불량한 곳은 배토기 등을 이용하여 배수구 재정비로 습해를 예방함
 - 이랑을 만들어 흩어뿌렸다면 배수구를 깊게 파주고 이랑 없이 줄뿌림한 포장은 7~10m간격으로 배수구 설치함
 - 습해로 식물체가 황화현상을 보이면 요소 2%액으로 10a에 100L에 2~3회 뿌려줌
 - 가뭄피해 우려 포장은 배수구 작업을 겸한 중경제초 실시로 겉흙의 수분증발을 억제시킴

□ 땅콩 파종

- 종자용 땅콩은 탈각 후 상처가 없고 충실한 종자만을 골라 종자 소독을 하고 최아하여 파종함
 - 땅콩을 최아하여 파종하면 불량종자를 제거할 수 있고 발아가 촉진되며 기간을 단축시킴
 - 최아방법은 충분히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물기를 뺀 다음 따뜻한 곳에서 2~3일간 젖은 채로 보관하면 5mm정도 백색 유근이 나옴

□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예방

- 평년대비 과수 봄철 개화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화기 저온에 의한 암술고사 등의 피해 발생 우려 됨
- 관수시설 점검 및 개화기 저온 예상시 충분히 관수 실시
- 서리는 대개 비온 뒤 2~3일 후 낮 최고기온이 18℃

이하, 오후 6시 기온이 7℃, 밤 9시 기온이 4℃ 이하로 떨어질 때,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는 날 서리 내릴 가능성이 높음

- 저온피해 상습 발생 지역 및 서리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과원의 경우 열풍방상팬 등 예방시설 사전 점검
 - 산지로부터 냉기류의 유입이 많은 곡간(계곡, 골짜기), 평지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여 분지 형태를 띠는 지역
 - 연소법, 송풍법, 살수법 등 실정에 맞는 방지대책으로 예방

방지기술	방 법	문제점
연소법	왕겨나 톱밥, 짚 등을 5m 간격으로 배치 후 연소	노력과다, 환경오염, 화재 위험
송풍법	방상팬을 6~8mn 철재 파이프 높이에 설치	기온이 -3℃ 이하로 내려가면 효과가 적음
살수법	기온이 0℃ 이하가 되면 스프링클러 등 살수장치 가동	충분한 물 양 확보 필요
재배적 방법	내한성 품종 재배, 멀칭은 늦게, 수관하부 풀 예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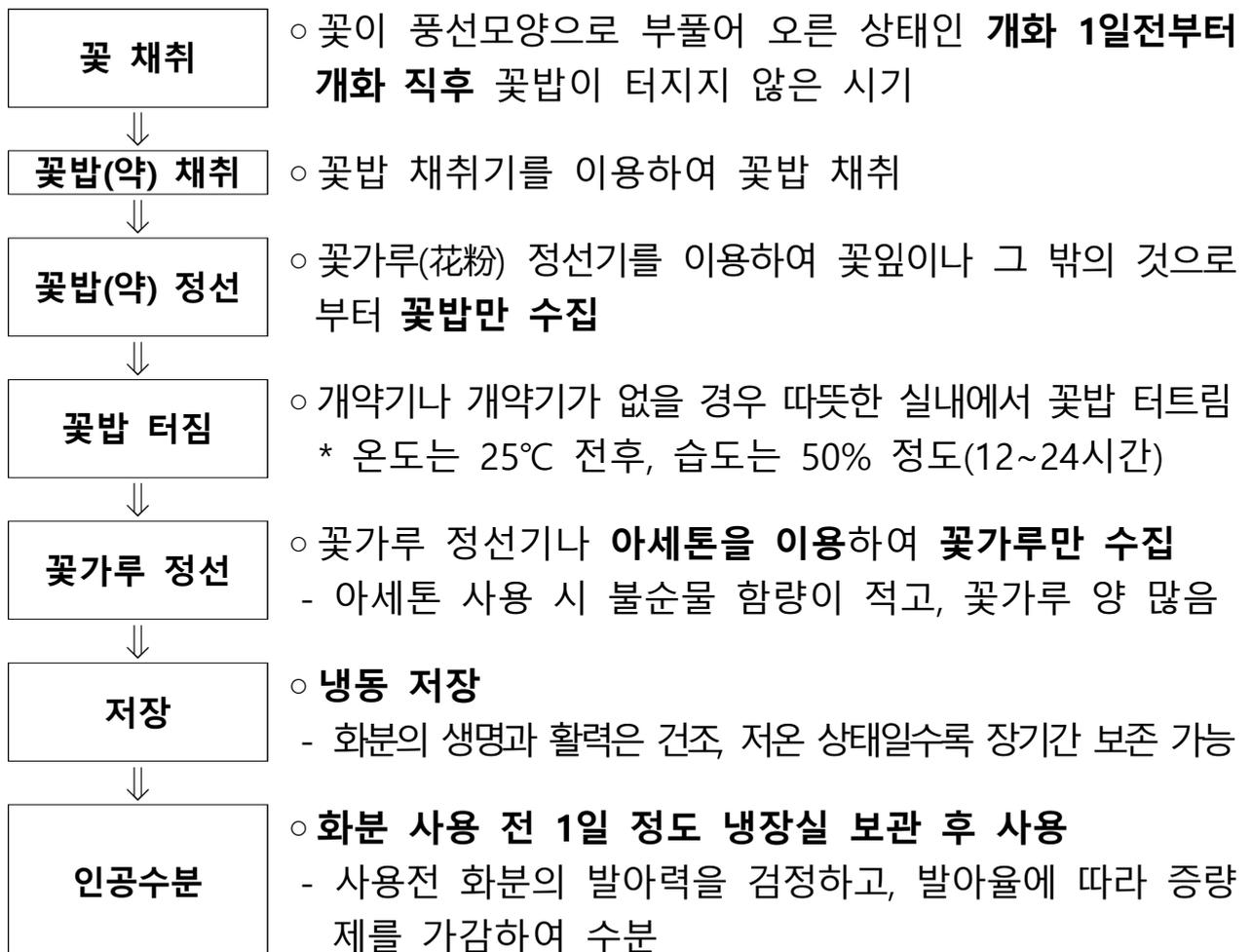
□ 고추 육묘 관리

- 본잎이 2~3매는 묘가 왕성하게 발육하는 단계로 균형적인 생육과 광합성 촉진으로 합리적인 양분전류 일어나도록 관리
- 물주기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기온이 상승했을 때 실시하며, 20℃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관수
- 봄철 온도상승에 따른 고온장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환기 주의

- 아주심기 일주일 전부터는 정식 포장의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육묘상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고 광선을 많이 받게 함

□ 꽃가루 생산 및 인공수분 기술

- 과수의 꽃피는 시기는 3월 이후 기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상 고온이나 저온이 발생하면 달라질 수 있음
- 이상기상에 따른 수분·수정이 우려될 경우 인공수분을 통해 적극적인 결실관리 필요



* 수분(受粉) : 면봉, 붓, 수동식 및 전동식 분사기 등을 이용하여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묻힘

□ 고품질 포도 생산 어떻게 할까?

○ 2021년을 돌아보면...

- 저온, 집중호우, 폭염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피해가 매년 발생
- 미발생 농가의 경우도 안심할 수 없음
- 피해를 주는 재배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음
-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배관리가 필요

축과 증상 발생 증가	일소 증상 발생 증가	배수불량과 고온으로 인한 고사 증상 발생
		

○ 상주시 월별 누적강수량을 살펴보면...

월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63.4	76.9	109.5	192.2	57
7월	404.8	131.3	221.2	466.7	216.1
8월	158.4	342.8	106.7	428.6	324.9
연간	953.3	1,357.2	1,062.5	1,563.7	1,230.8

- 불량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포도나무 만들기
 - 실천방법: 적정착과, 적정시비, 관배수시설 설치

[질문] 해충의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벌레를 잘 알 수 있어요?

고온현상으로 향후 농장에서 병·해충 발생은 더욱 극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해충 피해 극심, 토착 곤충의 해충화 현상 증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뭄, 태풍, 폭설, 우박 등 기상재해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병에 의한 피해, 해충에 의한 피해, 양분관리에 대한 피해, 토양관리에 의한 피해는 누구 책임인가요?

앞으로는 ‘해충 방제’의 개념을 ‘해충 관리’로 인식 변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상품 출하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충을 100% 방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100% 방제에 집착하다 보면 1)과다비용 지출, 2)잔류농약, 3)노동력증가 등을 야기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구요? 평상시에도 해충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방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생활화 하는 것입니다.

해충의 발육단계(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별 모습은 전혀 다르니 발육 단계별 모습을 알고 있어야 예찰이 가능하겠지요.

대부분의 농업인은 피해를 주는 애벌레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성충의 의미는 번식(씨종자)이므로 성충을 죽여야 해결된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른벌레를 죽여라” 성충을 지속적으로 잡아내야 밀도가 줄어 듭니다. 성충의 임무는 번식이며 암컷 1마리가 최소 100개에서 최대 8,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해충 종마다 생활사가 다르겠지요?

응애류, 배추흰나비, 배추좀나방 등 지상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토양을 경유하는 것, 토양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등 생활사를 이해하고 농장의 해충 밀도를 낮추는 방법을 종합적(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방제)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니 해충관리는 화학적 방제(살충제) 한 가지 방법으로 승부를 걸면 안 됩니다.

저력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